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4년 11월 발행 (제 55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무료배부

나팔 HP: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권두 메시지 ‘방주를 만들다’ 예레미야

◎간증 ‘개신교 교회와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E3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방주를 만들다” by 예레미야

“히브리서 11: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오늘은 방주를 만들다라는 테마로 노아 진술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위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에 관한 기록에서 그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다른 설명이 것을 믿음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방주의 의미는 일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상자 모양의 배입니다. 노아는 이 큰 목조 선박을 건조하여 가족이나 동물의 구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것은 더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비록 나 수수께끼를 가지고 말씀 때문입니다.

시편 8:2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쓰여진 대로, 비록 나 수수께끼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아의 이야기에 관해서도 비록 나 수수께끼를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의미>

이 히브리서에서 특필되고있는 방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방주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kibotos 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kibotos 실은 다음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4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같은 단어가 언약궤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여진 성경 말씀에 우연이 아니라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 비유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일치에 의미가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노아 시대는 종말의 날에 재현된다>

그런데 노아의 사건은 창세기에 기록된 오래된 일인데 그러나 이날은 종말의 날에 재현하는 것을 주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4: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4: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24:39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서는 주로 자신이

1. 주님의 재림의 날, 즉 종말의 날은 전 노아 시대의 모습이다.
2.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에 의해 모든 것이 쓸려 때까지 몰랐다. 같은 같은 것이 종말의 날에 재현하지만 아무도 주의하지 않는다.

주님은 이렇게 종말의 날은 노아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과거 노아 시대의 홍수와 같은 같은 일이 재현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주 안에서 이해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과 관련하여 다니엘서에도 홍수가 일어날 수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의 설명입니다.

다니엘 9:26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

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마지막 날에 "홍수가 일어날"수 천명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은 노아 시대의 재현이며,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물 홍수가 일어나>

홍수는 간단하게 말하면, 너무 많은 물이 밀려 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2011.3.11 일어난 쓰나미처럼 많은 물이 밀려 오는 것입니다. 는 것은 마지막 날에 과거 노아의 날처럼, 또한 세계를 물이 나게 대홍수가 재현하는 것일까 요? 그러나 다음의 무지개 계약의 묘사를 보면 그렇지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9: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9:14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9:15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기에서 주님은 무지개 언약을 세워 다시 노아의 때와 같은 물, H2O 물에 의한 홍수가 땅을 멸망시킬 않을 것을 약속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말 그대로 물, H2O 물이 종말의 날에 다시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 주가 종말의 날은 노아의 날임을 홍수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납치되는 것을 말했다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 것일까 요?

<홍수의 의미>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2O 물 대홍수가 종말의 날에 재현 할 수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비유 의미에서 종말의 날에 재현하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물은 영적인 것을 비유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설명을 보라.

요한복음 7:37 ○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 계로 와서 마시라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7:39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에서는 성령이 생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영적인 문제를 바르다 비록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5: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에서는 성령과 관련하여 물과 피가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물이나 혈액에 비유되는 분이 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영적인 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종말의 날은 귀신의 홍수 시대이다>

그래서 이러한 고찰을 통해 노아의 날의 비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말에 오는 노아의 날, 그것은 영혼 구체적으로는 악령의 대홍수 날의 비유입니다. 종말의 날에 악령의 대홍수가 온다? 이러한 생각은 받아 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대로 성경을 읽는다면, 종말의 날 배교의 교회 악령의 대홍수의 날이 도래하는 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9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2:10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2:11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2:12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는 종말의 날 배교의 교회에 사탄의 모든 거짓의 힘 표적 신기가 발생할 수 또한 하나님 자신이 미혹 힘을 이송하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즉 그날 귀신의 대홍수가 배교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계시록에 종말의 날에 무저갱의 천사, 즉 사탄을 왕으로 부채질 군대 즉 악령 군이 교회를 석권 할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종말의 날에 재현

9:1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9:2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 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9:11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 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종말의 시대가 되면 무저갱을 열고 악령의 머리가 나올 수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설명을 살피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노아의 설명을 살피 때, 거기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음 창세기 기록에서 살피 보자.

창세기 6:13 ○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은 그들의 때문에 폭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모든 육체 있지만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지고 있습니다. 같게 종말 악령의 홍수 날은 육체, 즉 육체 걸음을 하는 기독교인에게 심판의 때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악령의 대홍수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7:15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돌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에서 벗어날 것에 관해서 "생기 있는 모든 육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생기 즉 성령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온 여부가 그 기독교인이 홍수로 멸망 여부의 경계가 되는 것이 암시되어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7:19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매 천하에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7:20 물이 불어서 심 오 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홍수가 증가 더해져 결과 어떤 높은 산도 다 덮여 버린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비유 의미로는 악령의 부흥이 전 세계 교회를 덮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면서 있는 이상한 영의 부흥은 결코 그치지 않고 종 전 세계 교회를 덮는하게되는 것입니다. 다음 계시록의 묘사는 그 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다.

요한계시록 13: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3: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사고 파는 대속 (매입의 의미)의 예이며, 여기에서는 짐승의 표, 즉 악령을 받고 있는 일꾼이 아닌 교회의 봉사예 서지 않는 것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배도 교회에서 내려지는 영받은 영은 성령되지 않는, 귀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의 "모든 산들이 (악령의 홍수에) 넘어 진"과 노아의 설명과 일치합니다.

7:21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다시 말하지만, 육체가 모두 홍수에 의해 멸망 한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기 반대는 영이므로 영 성령에있는 것은 홍수에서 벗어날 수 암시되어있는 것입니다.

<방주의 비유>

처음에 쓴 대로, 방주는 언약궤를 통해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방주가 비록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과 함께 사는 여부는 것이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이 방주의 비유가 말했다 가르침은 끝에 일 악령의 대홍수 일에서 육체 행보를 계속 기독교인은 모두 귀신의 대홍수가 말려 영생을 잃어 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멸망을 면치 귀신의 홍수에서 벗어날 그런 것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신부의 비유>

이러한 생각은 엉뚱한 생각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계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많은 성경 구절이 같은 일을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즉 종말의 날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동행 여부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바로 세우기 여부의 갈림길이 될 수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현명한 딸 바보 딸의 부분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8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25:9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25:10 저희가 사라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기름은 분명히 성령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오심 즉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 수 있었던 현명한 딸과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딸과의 차이는 단 하나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 즉 성령의 임재를 갖고 있던 여부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아의 방주 묘사, 강조점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방주 설사의 의미로 언약케, 즉 성령의 임재 함께 걷는 그리스도인 이야말로 배도 교회를 석권 악령의 홍수에서 탈출 영원한 생명을 획득한다는 설명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은 다음의 설명과 같이 성령이 교회에서 쫓겨나 대신 귀신이 교회를 석권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6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2: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여기에 쓰여져 있는 만류 것으로는 다름 아닌 적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지하는 성령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제거 될 때까지"라고 쓰여져 있는 대로, 중 성령이 배교의 교회에서 제외되어 쫓겨날 날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끝까지 성령에 머물 것인지가 우리의 영원한 생사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을 알고 합시다.

<악령의 부흥은 진행되고있다>

악령의 대홍수라 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럴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 현상은 악령적인 것, 이상한 영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케네스 코플랜드 로드니 하워드, 베니 힌과 같은 '부흥의 그릇 "이 그늘에서" 짐승

의 표해라 "등 적 그리스도적인 말씀을 말하고 있다 비디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상 -



영혼의 홍수 : 재미있는 영혼의 부흥

‘개신교 교회와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E3

8 월 토요일 집회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배우를했는데 그 곳에서 우리 개신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간증을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7:1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7:2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이 다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7: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위 말씀은 구약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하신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 라고 있습니다 만, '유다'는 '남쪽의 유다'을 말하며, 신약 시대의 "개신교"의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 "여호와와 말씀을 들어라"고있어서,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 즉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 "

너희의 행위는 역사를 시정"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목사가 다음을 메시지되어있었습니다.

3 절은 "행위와 역사를 회개"라는 메시지입니다. 게다가 개신교 기독교인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가되어 있지 않은, 따라서 "행실을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신교에 대해 "행위를 회개!" 라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곳 '은 기독교 의'약속의 땅 "(천국)입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만약 회개하지 않고 더 이상 "죄"를 계속한다면 "약속의 땅"(천국)에서 쫓겨 버립니다. 모처럼 교회에 있어도 '다른 곳'에 들어가 버립니다. (예레 미야 목사의 추천으로)

한때 자신 무례하면서도 「가톨릭」에 비해 「프로테스탄트 "는 하나님 앞에"충분히 괜찮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읽고, 개신교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로마 교황 숭배, 성인 숭배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리아에게기도, 마리아 상을 경배 지옥은 없다고 하나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정확한 등의 교리는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문제 는 있지만... 그러나 남의 것은 제쳐두고 집회에서 배운 것을 계기로 '개신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3 절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와 "기술"에 대해서입니다. "행위"와 "기술"의 결과는 KJV 번역에서는 "ways"(도로, 방향, 방식, 행위, 습관, 풍습, 습관) & "doings"(행위, 행동)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정"의 결과는 "amend"(행위를 잘하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행위와 기술을 시정하라"의 점은 "너희의 길과 방향이나 습관이나 풍습과 행위 나 행동을 자주한다 '는 식으로 번역 할 수 있습니다. 세 단어의 공통점은 "행위"입니다. 방금 전의 예레미야 목사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행위를 잘합시다!"즉 "행위를 회개합시다!"라는 것이 강조되고있는 것을 알 것 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라고는 아무것도하지만 모처럼이므로 「행위를 잘하는 "즉 행위를 회개한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은 요구되고 있는가? 에 대해 살펴 싶습니다.

요한복음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3:15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16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18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3: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오디게아"는 "회중의의"(사람들의 정확성)라는 뜻입니다. 덧붙여서 당시 "바리새인"의 의미는 "완전"라는 뉘앙스가 의인 죄 떨어져 있다는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은 매우 비슷하여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7 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당신은 자신이 부자가 부자가 된,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실은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른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부자가 부자가 된,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까지는 KJV 번역에서는 "상품이 증가하고 부자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이 말씀보기 읽고, 재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흡족 있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든가 "풍부하다"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따위 필요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성경의 율법을 지킬 관철'아 "라는 식으로 잡 힌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 벗은 사람임을 모르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비유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난"까지는 KJV 번역은 "빈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결여되어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님"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아'라는 뜻입니다. "알몸"는 18 절에 "벌거벗은 수치"라고 합니다 같이 "영적으로 부끄러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 즉 개신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상태임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 절 "불로 정련 된 금을 내게서 사십시오. 당신은 또한 당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입는 흰 옷을 사십시오. 또한 보게 되므로 눈에 바르는 안약을 사십시오."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9 절에 "열심히 하고, 회개하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있어서 '불로 정련 된 금'과 '벌거 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입는 흰옷'와 '눈이 보이는 위한 안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나가기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는 최후에 이 세 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불로 정련 된 금"은 "-tested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에 따라 게다가 '어려운'나 '환란'이나 '시련'을 통과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에 머뭇가는 믿음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흰 옷"은 "의로운 행위"즉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안약"는 "영적으로 바르게 본다"결정 통합입니다. 이러한 것을 "열심히 구하라!"라는 말을 하고, 만약 정말 기도 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대로 '회개'로 통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나 자신도 이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신앙 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혹은"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혹은"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혹은"회개 할 점 하나님께 지적 주셔서 즉시 회개 수 있도록"라고 하는 바람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미흡 하나마 실천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않거나 실천 해 나가지 않으면 때 "천국"이 위험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개신교 교회와 기독교인에게 "회개"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것을 인정

여부는 별개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하고있다 경고이므로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구나"라고 생각하면, 꼭 실천해보십시오. 이번에도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